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제130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 개최

11월 12일(토) 오전 9시 20분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가 오는 11월 12일(토) 오전 9시 20분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개최됩니다.

금강경을 올바로 알고 금강경의 참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이 대회는,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경전강송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금강선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살사상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

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교시에서 3교시까지 개인전 외워쓰기, 이해도 평가, 강송 평가가 있고 4교시 단체전 합송이 있습니다. 이외 사경과 수행수기 부문이 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지원한 참가자들은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공부한 역량을 심사위원들과 대중들 앞에서 맘껏 펼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단체전은 다양한 팀에서 개성 있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합송을 보

여쯤으로써 강송대회의 큰 재미를 더해준 만큼 올해 더욱 기대되는 부문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생활 속에서 암송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겪은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수행수기부문도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올해로 6년 째 대회를 맞이하는 금강경 강송대회는 이제 전국에서 불자들이 참여하는 범불교 행사로 또한 금강경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금요경전법회 「화엄경」 개강

10월 7일(금) 오전 11시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10월 7일(금) 오전 11시 대법당에서 「화엄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부처

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상을 기본으로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 세계를 구현해나가는

것을 설한 경전입니다. 이번 화엄경 강의는 불교방송 BTN 에서 방송 될 예정입니다.

가을 사찰순례법회

오는 10월 19일(수) 대구 동화사(桐華寺)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493년에 극달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하였고, 823년에 심지왕사가 증건할 때 겨울 인데도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동화사라 개칭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경내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롯하여 당간지주, 비로암 3층석탑, 마애불좌상,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상, 금당암 3층석탑, 석조부도군 등 보물이 있습니다.

이번 순례법회는 한국의 수행전통과 간화선 수행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반인의 수행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간화선 대회에 동참하는 법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선지식을 초청하여 삶의 본질을 묻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간화선 대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 출발일시 : 10월 19일(수) 오전 6시30분
- ▶ 출발장소 : 국민은행 옆(경기여고 맞은편)
- ▶ 동 참 금 : 5만원

2017 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문

오는 10월 1일(토) 오후 2시 대법당에서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헤거 큰스님의 특별법문이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습니다. 헤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수험생들은 공부에 더 정진하고 학부모님은 기도에 정진하여 좋은 성과 이루길 바랍니다.

금강명상지도자 전문가과정 개강

오는 10월 22일(토) 1시 금강선원 대법당에서 금강명상지도자 전문가과정을 개강합니다. 불교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헤거스님)에서는 다양한 명상이론과 실습을 통해 명상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과정은 기본강좌와 심화강좌를 이수한 수강생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입니다.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시상식

금강선원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하여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참가자들을 시상하는 시상식과 더불어 범패, 종묘제례악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 일 시 : 11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제42기 선하불교대학 개강



제42기 선하불교대학 수업중에서

지난 9월 5일(월) 오전 11시 대법당에서 제42기 선하불교대학이 개강되었습니다. 이날 헤거 큰스님

께서는 법문을 통해 기초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마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일체유심조]사상을 가르쳐주신 부처님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배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고 인격을 갖춘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12월 5일(월)까지 13주간 진행됩니다.

제29기 기초참선반 개강



좌선수업을 하는 기초참선반

지난 9월 5일(월) 저녁 7시 대법당에서 제29기 기초참선반이 개강되었습니다. 헤거 큰스님께서 “

세상을 잘 살려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주인이 되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참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참선의 핵심은 업을 바꾸는 데 있다. 수행을 하여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면 업이 바뀐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 삶을 한 단계 향상시키길 당부하셨습니다. 12월 12일(월)까지 총 14주간 교육 후 심화반에서 참선 심화과정이 이어집니다.

「능엄경」 승려연수교육 개강

지난 9월 22일(목) 오후 6시 대법당에서 「능엄경」 승려연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한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여 교전의 독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전의 참뜻을 이해하고 한문 원전의 번역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조계종 교육원 승려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헤거 큰스님의 강의로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전통 강원식 교육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초한자반 개강

지난 9월 21일(수) 오후 1시 소법당에서 기초한자반이 개강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불교 경전뿐 아니라 한문으로된 각종 서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필수 한자를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강좌입니다. 기초 한자에서 부터 한자 검정 4급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기초한자반은 연 2회 개강합니다.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프로그램 수료식



수료식 후 모두가 함께 한 단체사진

지난 9월 25일(일)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8주간 진행되었던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프로그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완명상, 전두엽훈련, 명상표 보기, 듣기훈련, 숫자훈련, 이미지훈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 1급과정 연수생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프로그램 수료식과 더불어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 1급 수료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박물관 단신

2016 제1회 박물관 차회(茶會)

지난 8월 31일(수) 박물관 봉사자들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은 차회가 있었습니다. 남강거사의 판소리 춘향가와, 바이올린 반주가 박물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백한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문화가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미술심리 체험활동

9월 2일 별가람 중학교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라포형성활동과, 희망메세지부채 만들기, 희망팔찌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회 탄허기념박물관 차회중에서

탄허기념박물관 다섯 번째 기획전

그림속의 그림

2016. 8. 12(Fri)~2016. 10. 15.(Sun)
초대일시: 8. 12(Fri) PM 4:00
전시와 인채물은 서울시의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관: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서울특별시

2016 제5회 기획전 그림속의 그림

서울시 문화자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그림속의 그림** 전시가 8월 12일 오픈되었습니다.

전시의 내용은 인장관련 전시이며, 용어, 사용법, 찍는 위치에 따른 인장의 종류 등 그림과 글씨 속에 깃든 또다른 그림인 인장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인장관련 책, 탄허스님 인장, 한국 인장박물관에서 대여한 추사의 인장과 현대 민화 작가이자 금강선원 신도이신 구연경 작가님의 8폭 병풍인 동굴도, 화성 능행도를 비롯 모란도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대승기신론』 강설 ④



Ⅲ. 解釋分(根本思想解説)

已說立義分호니 次說解釋分호리라 解釋分에 有三種하니 云何爲三고 一者는 顯示正義요 二者는 對治邪執이요 三者는 分別發趣道相이나라 이미 立義分을 設했으니 다음엔 解釋分을 說하리라. 解釋分에 三種이 있으니 어떤 것이 三이 되었고, 一은 正義를 顯示함이요 二는 邪執을 對治함이요 三은 道에 發趣하는 相을 分別함이나라.

해석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 번째는 현시 정의顯示正義이다. 즉 정의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인데, 정의는 정법으로 바꾸어서 바른 법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치사집對治邪執으로, 잘못된 생각을 대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려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 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인데, 이것은 발심하여 도道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분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발취는 발심으로, 도로 나아가는 것은 인격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해석분은 앞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기신론에서는 경전에 나오지 않는 법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신론이 경전을 바탕으로 된 논서論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짧은 소견이나 감정을 버리지 못

하고 맺혀있거나 가시가 돋친 말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내버린 말은 맺혀있거나 가시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자주 버리세요.

(1). 顯示正義(總說二門)

顯示正義者는 依一心法하야 有二種門하니 云何爲二오 一者는 心眞如門이요 二者는 心生滅門이나라 是二種門이 皆各總攝一切法하나니 此義云何오 以是二門이 不相離故나라. 正義를 顯示한다는 것은 一心法을 依하여 二種의 門이 있으니 어떤 것이 二가 되었고, 一은 心眞如門이요, 二는 心生滅門이나라. 이 二種門이 다 各各 一切法을 總攝하나니 此義가 무엇인고, 이 二門이 서로 여의치 않음을 쓴 연고나라.

바른 법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것은 일심법에 의거하고, 그 일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다른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이 심진여와 심생멸은 각각 모든 법을 총괄하고 섭수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두 문은 각기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의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하나의 문인데 사람이 머리로 헤아려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여문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멸문을 완전히 닦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여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여란 벽을 보고 앉아 천 년 세월을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뼈 속까지 쌓여 있는 탐진치를 말끔히 씻어내고 하늘에 닿는 간절함이 있어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일상생활은 다를 바 없으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가기 때문에

길이 다릅니다.

1. 心眞如門 ●離言眞如

心眞如者는 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니 所謂心性이 不生不滅이라 一切諸法이 唯依妄念하야 而有差別이니 若離心念하면 則無一切境界之相이 나라 是故로 一切法이 從本已來로 離言說相하며 離名字相하며 離心緣相하야 畢竟平等하야 無有變異하야 不可破壞라 唯是一心일새 故名眞如니 以一切言說이 假名無實이라 但隨妄念하야 不可得故나라

心眞如란 것은 곧 이 一法界 大總相法門體니 所謂 心性이 不生不滅이라. 一切諸法이 오직 妄念을 依하여 差別이 있나니 만일 心念을 여의면 一切 境界의 相이 없느니라. 이런 故로 一切法이 根本을 좇아 이미 옴으로 言說相을 여의며 名字相을 여의며 心緣相을 여의어서 畢竟 平等하야 變異함이 없어서 可히 破壞하지 못하는지라. 오직 이 一心일새 故로 眞如라 이름하나니 一切 言說이 假名이요 無實이라. 다만 妄念을 따라서 不可得임을 쓴 연고나라.

심진여라는 것은 바로 한 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당체이니 마음자리는 본래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나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만약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의 모습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을 여의었으며, 명자상을 여의었으며, 심연상을 여의어서 필경에는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일심이기 때문에 진여라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언설은 빌린 이름이요 실체가 없어서, 단지 망념에 따라서 가명이고 무실이기 때문에 진여를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말을 떠난 진여!

금강경에 말이 있는 보시는 보시

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진여는 음성이나 말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구名句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일어 밖의 경계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일기 때문에 오로지 일심으로 정진해야 진여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생멸이 없다는 말은 촛불이 켜지면 밝지만 끄면 어두워지는 데, 이 불은 온 곳도 없지만 간 곳도 없습니다. 마음도 이 촛불처럼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이 단지 조건이 맞으면 생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없어져 멸하더라. 그래서 오고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言眞如者도 亦無有相하니 謂言說之極이라 因言遣言이어나와 此眞如體는 無有可遣이니 以一切法이 悉皆眞故며 亦無可立이니 以一切法이 皆同如故라 當知一切法이 不可說不可念일새 故名爲眞如나라

眞如라 말한 것도 또한 相이 없으니 言說의 極을 말함이라. 말을 因해 말을 보냄이어나와 이 眞如體는 可히 보낼 게 없나니 一切法이 모두 眞임을 쓴 연고며 또한 可히 세울 것도 없나니 一切法이 모두 如와 같음을 쓴 연고라. 마땅히 알라. 一切法이 不可說이며 不可念일새 故로 이름하여 眞如라 함이나라.

진여라고 말한 것도 일심뿐이기 때문에 상이 없으니, 일심이라고 한 것도 언설의 극치로 말한 것이다. 말로 인하기 때문에 말은 버릴 수 없거니와, 이 진여 당체는 가히 버릴 것이 없나니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진眞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여는 가히 주장하여 세울 것도 없나니 일체 법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당지하라! 일체 법은 말로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진여라고 하느니라.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초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수료식 중에서



템플스테이 중에서



템플스테이 중에서



템플스테이 중에서

▶ 처음에 명상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이게 뭘가 했다. 15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다. 하지만 매주 꼬박꼬박 했더니 내 몸을 쉽게 이길 수 있었고 더 오랫동안 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었다.

명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무엇보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했다. 명상을 하면서 얻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는 나를 이기는 힘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 했던 것 같다. 다음번에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두 달 간의 11기 청소년 기초명상과정을 끝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전에는 수업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주의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주말에 선원에 나와 명상하고 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 끝내고 보니 아쉬움만 남는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과 나의 공부 습관이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록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집에서 명상은 계속해야겠다.

▶ 너무 더웠던 이번 여름 8주 동안 아이와 함께 명상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무언가 커다란 과정을 함께 시작하고 마쳤다는 기쁨과 대견함을 느꼈다. 명상을 매일같이 저녁에 하면 좋

을 것 같은데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토요일 마다 헤커 큰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명상수업을 듣게 되어 아이와 내게 무언가 큰 재산이 생긴 거 같다.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에 또 참여하고 싶고, 명상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가져본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부모)

▶ 이번 명상교육을 하고 나서 시간 관리의 소중함을 안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잠깐을 하더라도 집중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의 힘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다 정신을 모을 수 있다고, 공부하다가 명상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수강하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했으면 했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뜻깊은 1박 2일이었습니다.

스님들 일과를 체험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피곤했지만 정신과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불과 참선을 하면서 평소에 들었던 잡생각이 없어지고 오직지금 하는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산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정상에 오르니 내려다보이는 서울시의 풍경이 너

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밥과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에서 먹는 밥에 대해서 그동안 갖가지 오해를 하고있었는데 먹어보니 매우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템스데이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번쯤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00, 경희여고 2)

▶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후 맨 처음 공양을 하였습니다. 고기가 없고 채소만 있는 밥이었는데 조금은 안 맞았지만 나중에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다라와 그림엽서를 색칠했는데 명상하는 것에 비해 재미있었고, 더 집중이 잘되었습니다. 저녁이 된 후 저녁예불을 하고 스님과 참선을 하였다. 스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명상을 10분 정도 했는데 탄허기념박물관에서 20~30분 했다가 10분 하니까 되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친목게임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팀이 잘해서 꽤 많이 이겼고 재미있었습니다. 폭 자고 일어나 비몽사몽한 채로 새벽예불을 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서툴고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엔 계속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힘들고 땀도 났지만 오랜만에 간 계곡 주변이라 시냇물 소리도 길게 들을 수 있었고 되게 맑았습니다. 사경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스님과 차담을 했는데 좋은 말씀과 차가 맛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기도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이번 템플스테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최00, 경기여고 1)



일일일선 일일일사

一日一善 一日一事

만일수행결사회는 보살사상을 실천하는 수행단체입니다. 보살운동은 금강선원 신도나 불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행운동이자 널리 확산시켜야 하는 정신적 계몽운동이며, “좋은 세상 만들자” 라고 하는 헤게 큰스님의 대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수행을 통해 안으로 인격을 갖추고 그 인격을 토대로 자비심을 내어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 즉 나를 위한 자비심과 남을 위한 자비심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 만일수행결사회의 원력이고 발원입니다.

금강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 화엄불사, 보살운동, 만일수행결사, 금강경강송대회 등 모든 행사와 법회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고 봅니다.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만일수행결사 회원은 500여명으로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간경, 염불, 참선 중 각자의 근기에 맞게 열심히 정진하고, 밖으로는 선한 일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되고 건

강한 삶이 있겠나 싶을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수행결사에 동참하면 좋겠다’ 는 간절한 발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비록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모이고 모치면 큰 힘이 된다는 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혼자 하는 수행보다는 함께하는 수행, 혼자 하는 선행보다는 함께하는 선행’ 이 멋진 대승의 도리를 우리는 만일수행결사라는 통해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권장해볼 만한 금강선원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도반들 수행을 돕는 것이 제 수

행이고, 도반들과 더불어 신명나게 정진하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만일수행결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직의 가치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내용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고, 의미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자는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헤게 큰스님과 모든 분들의 뜻을 잘 받들면서 원만하고 모범적 수행단체가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글 / 보리성(만일수행결사회 회장)



어머니의 김치 국수

더위가 어지간히 물러간 어느 일요일 오후. 모처럼 식구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점심거리가 없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던 중 퍼떡 김치 국수가 생각나더군요. 열무김치에 말아 시원하게 먹는 국수가 아닙니다. 끓는 물에 넉넉히 김치를 넣고 반쯤 익었을 때 국수를 조금씩 넣으며 저어서 푹 끓여 내 놓는 김치 국수지요. 얼큰하고 걸쭉한 국물에 두 배로 불어난 국수를 떠먹는 식구들 반응이 좋습니다. 남편은 마치 고기 없는 천렵국 같이라며 맛있게 먹네요. 아이들은 매일 먹는 국수 맛과 달라서 신선하다나요?

땀을 흘리며 김치 국수를 먹는 식구들을 보며 나는 친정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식구라고 해봐야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나까지 모두 셋이었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이 갑자기 경제 활동을 해야 했던 어머니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면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운동화는 항상 비스듬하게 닳아버려 비라도 오는 날엔 매번 양말까지 흠뻑 젖었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고생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살림에 당신을 위한 옷가지 하나 양말 한 켤레 사신 적이 없던 어머니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있습니다. 먹거리였습니다. 워낙 허약하고 작은 체구였던 우리 자매가 행여 또래 아이들에 뒤질세라 어머니는 먹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시기를 기다릴 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머니 손에 들려 있을 간식거리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종이봉투 안에 어른 주먹보다 큰 복숭아가 두 알 들어있었고 어느 날엔 국

화빵이나 찐빵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들 어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세 들어 살던 주인집 막내아들이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 출출하던 우리 자매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낫 놓고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를 데리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신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꺾더니 다짜고짜 우리 종아리에 매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거지가 아니다. 왜 남이 먹는 걸 쳐다 보냐.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를 맞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동산에 붉은 진달래가 흐드러졌던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해서 울었고 우리는 아프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아단치는 소리조차 주인집에 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도 어찌지 못했던 것이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쌀독은 늘 바닥이 보였고 반찬도 여의치 않아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 바로 김치 국수였습니다. 김치를 넣고 끓인 국수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나 늘 배가 고팠던 우리가 끼니를 때우기에는 더 없이 훌륭한 식사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먹어야 했던 김치 국수. 어머니는 옆에 앉아 어린 우리가 땀을 흘려가며 매운 김치 국수 먹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는 어른이 되었지만 한동안 국수를 먹지 않았습니.

이제 곧 어머니 생신이 다가옵니다. 생전에 좋아하셨던 바나나와 국화를 들고 어머니를 모셔둔 절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이 김치 국수를 엄청 좋아하네요.”

글 / 전현서(국제포교사)

내 몸이 반하는 병원

한성한방병원

02-543-7533 | www.hansungmk.com

학생들과 함께 '금강경 강송대회' 참가하기까지의 단상



민지선 / 동국대 부속 영석고 교사

지난 9월 3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제8회 나란다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처음 열리는 '우리말 독송대회'였습니다.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명씩 한 팀을 이루어 총 13팀이 '우리말 예불문'을 봉독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신심을 우려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 불자들이 줄어 들고 있다, 청소년 포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날 학생들의 모습에서 청소년 포교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나란다축제에서 '우리말 독송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금강선원의 '금강경강송대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아침마다 학생들과 함께 108배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학생들의 108배 정진 이야기가 불교신문에 기사로 실렸고, 이를 본 금강선원의 한 보살님의 연락을 받고 '금강경강송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들 어본 적도 없고 뜻도 모르는 '금강경'을 외우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11월 쯤 있는 다른 교내의 행사들도 생각하면서 '금강경강송대회'에 참가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슬람교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코란'을 암송합니다. 일단 외우고 자라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불교 중립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종교시간이 있었는데,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고등학교 때는 한문 반야심경을 독송했는데 의미도 잘 모르고 외우려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음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끔 절에 가면 '반야심경' 하나는 외울 줄

안다는 게 뿌듯해서 큰소리로 따라서 봉독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예불문, 반야심경, 금강경 구절의 뜻과 의미를 배웠습니다. 경전의 뜻을 설해주신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경전 구절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면밀히 알고 자신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 의미와 이치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전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속으로 반야심경을 외면서 다녔습니다. 그냥 노래 흥얼거리듯 반복적으로 되뇌는데 어느 날 문득 반야심경의 '고심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는 구절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당시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피하거나 출근길에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문득 제가 잘못 생각하고 '옳다'고 고집하고 있던 생각을 알아차리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의 구절을 되뇌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외운 적이 없어서 많이 들었던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의 뜻을 가끔 떠올릴 뿐입니다.

나란다축제를 준비하시던 법사님들은 금강선원의 '금강경 강송대회'를 보고 '우리말 독송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독송대회'를 준비하면서 2년동안 아침마다 함께 했던 예불문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심대 때 습관처럼 아침마다 법당에서 봉송하던 예불문과 반야심경의 의미를 아이들이 언제쯤 제대로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마음과 기억 속에 조금씩 자리 잡아 어느 순간씩을 떠올 것입니다.

이제 11월에 있을 '금강경강송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낯선 한문 구절을 음울에 맞추어 외우려고 하니 학생들이나 저나 그저 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송하게 된 구절들이 아이들이나 저에게 언젠가의 커다란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Zoom in 美 금강선원 도반, 담현 김외자 작가 전시회

지난 8월 31일(수)~9월 6일(목)까지 인사동 갤러리 La Mer에서 담현 김외자(불명:보현행) 작가의 '사군자의 상징과 정감표현' 연구전이 열렸습니다.

헤거 큰스님의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은 낮추고, 여여하라."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스님의 경전강의에도 열심인 김외자 작가는 금강선원 신문인 금강회보 '畫心칼럼'에 다년간 작품과 글을 게재하는 등 독자들을 위한 활자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사군자를 사계절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각 계절의 정감을 표현하였는데, 매화는 봄으로, 여름은 난초, 가을은 국화, 그리고 겨울은 대나무로 설정하고 수묵, 채색을 활용하여 각 계절마다 독특한 정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제자인 해광 흥정림의 전시회("탈" - 동물원 log)도 함께 열렸는데, 스승인 김외자 작가의 권유로 금강선원 도반이 된 흥정림 작가는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헤거 큰스님의 경전법회에도 열심인 불심이 깊은 법우입니다.



작품과 함께 한 김외자 작가



전시회 전경



전시회 전경



제자 흥정림 작가의 전시회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화엄경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교문진보 매주(일)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 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 7시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제4기 금강행상지도과정 6월4일(토)~12월10일(토) 오후 1시

문화특강 안내

한문전문반(근사록)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선원 일정 (10.1 ~ 10.31)

10/01(토)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초하루 기도
수험생 / 학부모면담 14:00
10/02(일)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교문진보 11:00
근사록 13:30
10/03(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불교대학 11:00
기초참선 19:00
10/04(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10/05(수)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육조단경 11:00
기초한자 13:00
10/06(목)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승려연수교육(능엄경) 18:00
10/07(금)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화엄경 11:00
의전공부 13:30
10/08(토)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보름기도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10/09(일)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교문진보 11:00
근사록 13:30
10/10(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선하불교대학 11:00
기초참선 19:00
10/11(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10/12(수)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육조단경 11:00
기초한자 13:00
10/13(목)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승려연수교육(능엄경) 18:00
10/14(금)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화엄경 11:00
의전공부 13:30
10/15(토)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10/16(일)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교문진보 11:00
근사록 13:30
10/17(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선하불교대학 11:00
기초참선 19:00
10/18(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지장재일
10/19(수)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육조단경 휴강/기초한자 휴강
순례법회(동화사)
10/20(목)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승려연수교육(능엄경) 18:00
10/21(금)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화엄경 11:00
의전공부 13:30
10/22(토)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청소년지도자과정심화 13:00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00
10/23(일)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교문진보 11:00
근사록 13:30
10/24(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선하불교대학 11:00
기초참선 19:00
10/25(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10/26(수)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육조단경 10:30
10/27(목)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승려연수교육(능엄경) 18:00
10/28(금)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화엄경 11:00
의전공부 13:30
10/29(토)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청소년지도자과정심화 13:00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10/30(일)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교문진보 11:00
근사록 13:30
10/31(월) 수능 100일 기도 5시/10시
초하루기도
선하불교대학 11:00
기초참선 19:00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7개
아마천공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New 대승기신론.....40개
New 한비자(헤거스님).....26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15장
New 대승기신론.....40장
New 도덕경.....47장
New 맹자 진심장(헤거스님).....26장
New 한비자(헤거스님).....26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헤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 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정정합니다

지난 금강회보 128호(7월 25일자) 4면 '금강선원 신 임원진 및 단체장' 명단 중 신임 자재회 회장은 정토화(유순덕) 보살님으로 정정합니다.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시금 | 천화당한의원 신새벽
보시물 | 동명한의원 장기팔 박기화
대중공양 | 선혜심 김완기 윤성준
대중떡공양 | 한완상 박예수 심주현 금강경독송회 이인기 박병열 대법화 하경식 최경화 박예수 조정연 장현진 채미숙 윤창순
신문보시금 | 이진우
꽃보시 | 상지행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구 좌 동 참
1-1606 정혜동
1-1636 이재호
1-1637 이현정
1-1638 이재용
1-1639 안태진

1-1640 안승민
1-1642 최하윤
1-1643 박현금
1-1644 이동수
1-1645 박무영
1-1646 현규남
1-1648 손정욱

1-1649 박은호
1-1650 노기동
1-1651 노정욱
1-1652 효진스님
1-1653 윤성재
1-1654 김상범

화엄경영가구좌동참

1-1641 양정덕 영가



금강경 강송대회

여.섯.번.째

마음을 비우는 寶庫

일시 : 2016.11.12(토)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1. 응시부문 : 개인전, 단체전
2. 원서접수 : 2016년 8월 1일 ~ 10월 30일 (선착순 접수)
3. 접수방법 :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keumgang-sw@hanmail.net)
4. 시 상 : 2016년 11월 19일 (토) / 탄허기념 박물관
5. 시상내역 :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 우수상 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단체상 / 100만원(총 3팀)
각 부분 및 수행수기, 금강경사경 특별상 수여
6. 문 의 : 금강선원 Tel. (02) 445-8484 www.geumgang.org

*제세공과금(22%)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동일 수상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최 : 오대산월정사, BTN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BBS불교방송, 강남구청